

보도시점

2024. 2. 20.(화) 16:00
2. 21.(수) 조간

자료배포 2024. 2. 20.(화) 09:00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하고,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 농식품부, 「K-Food⁺ 수출 혁신 전략」 발표(2.20)와 함께,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 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포함(+)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 * 주요 수주 : 넥스트온(쿠웨이트, 2,000만불), 플랜티팜(UAE, 410), 셀포트(카자흐스탄, 187) 등

- ** '23년 K-Food⁺ 수출은 121.4억불로 바이오 산업(134)에 이어 12대 수출산업 수준
주요 수출 품목('23년 수출 실적, 산업부) : 반도체(986억불), 자동차(708), 일반기계(535), 석유제품(522), 석유화학(457), 철강제품(352), 자동차부품(230), 선박(220), 디스플레이(186), 무선통신기기(155), 바이오헬스(134)

- *** '23년 수출 실적 : (K-Food⁺) 121.4억불(전년비 2.6% ↑), (농수산물) 121.6(1.0%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붙임 1, 2 참고)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농수산물식품 및 전후방 산업 수출 목표 167억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수산 32) 달성을 위해 물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간다. 앞으로 부산항, 포항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 부산·울산항만공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K-Food Fair,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기반 마케팅, 해외홍보관 등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특허청과는 K-Food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 조직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유망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K-Food+ 수출 영토를 다각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2월 20일(화)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 K-Food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용 의약품·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본부장 : 농식품부 장관)

이날 간담회는 '24년도 정부의 수출 전략을 수출기업 및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기업,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수출기업 CEO 및 유관기관장 약 30명 참석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Food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Food+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K-Food+ 수출 혁신 전략」 주요 내용
2. 「K-Food+ 수출 혁신 전략」 요약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이용직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여종수 (044-201-2172)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한우리 (044-201-2472)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실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희정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장용호 (044-200-5481)

「K-Food⁺ 수출 혁신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①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 해오던 수출 구조를 수출조직이 자생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한다. 품질 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기존 물류비 사업은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 수출조직 확대계획 : ('23) 10개(딸기, 파프리카, 포도, 배 등) → ('24) 12 → ('27) 20

② 국내부터 해외판매지까지 수출 전(全)단계에 걸친 신선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저온시설이 부족한 국내 선별장, 항만·공항 근처에 저온창고·차량, 특수포장재 등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지원하고 있는 해외 콜드체인을 '27년 12개국으로 확대한다.

* 해외 콜드체인(6개국) :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인도네시아('24.2월 기준)

신선농산물 유통구조에 맞는 CA 모델*도 구축한다.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 체계 전환이 필요한 딸기, 버섯 등은 이동형 CA컨테이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저장이 필요한 배, 포도는 산지에 고정형 CA 시설(5개)을 설치한다.

* CA(Controlled Atmosphere) : 대기 환경 조절을 통한 신선도 유지 기술

독일 함부르크, 미국 시카고 등 세계 20위 내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해외 물류센터 이용 지원을 확대('24: 93개 → '27: 115)하고, 해수부와 협업하여 주요 항만 배후단지에 농식품 관련 수출기업* 입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산·울산항만공사 등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신선농산물 수출 시 공항 신속통관제도 도입을 통해 보안검색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작년 시범(딸기)으로 추진했던 공동포워딩***을 배, 파프리카 등으로 확대한다. 그간 개별 업체들이 물류 비용을 협상해왔으나, 수출조직이 물량을 모아 일괄 협상을 추진하는 ‘공동포워딩’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 새로 부지를 조성하는 부산항, 포항항 등 배후단지 가공공장, 물류창고에 농식품 관련 수출기업 입주 확대 추진

** 신속통관제도 도입 시 통관시간 기존 3~6시간 → 1~2시간으로 단축

*** 공동포워딩 : 수출통합조직이 전체 수출물량 대상 운송사와 일괄 운임 협상 (딸기 공동포워딩 운영 결과 운임 21% 절감 효과, '22~'23년 작기 분석)

식품 제조 수출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수입규제(중동), 물류·원자재 리스크, 친환경 포장재 규제(EU)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 R&D 등을 추진하고 수출보험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 구성을 협의해나가며, 특허청과 K-Food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쌀가공식품, 과일음료 등 특색 있는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브랜딩, 공동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둘째, K-Food⁺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① 3대 신(新)시장(중동, 중남미,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 K-Food Fair 개최(멕시코, UAE)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협, 코트라 등 해외조직과 연계하여 시장정보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을 현재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하고 인증 지원 등 할랄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 농식품 수출 시장규모('23년) : 미국 13.1억불(비중 14.6%), 중국 14.0(15.5), 일본 14.4(15.9), 아세안 18.3(20.3), EU 5.4(6.0), 중동·중남미·인도 5.6(6.2)

② 기존 시장은 내실화한다. EU, 아세안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시장 개척요원을 파견하고 현지화 제품 개발, 마켓테스트 등 현지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중·일은 2선시장* 진출을 위해 로컬유통업체 입점 지원, 지역 박람회와 안테나숍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지유통 바이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편**, 온라인 바이어 상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 2선시장 : 각 국가별 중점도시 외 주변 지방도시(中 청도, 日 교토, 美 텍사스 등)

** (현행) 현장 1:1 바이어 상담 → (개편) 사전 온라인 상담, 사후 샘플 발송, 밀착 관리

③ 검역협상이 수출성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수출검역을 추진한다. 유망 협상품목 발굴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식품 수출검역협상 로드맵’을 마련하여 양자관리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열처리가금육(EU), 감귤(뉴질랜드) 등 신규 검역해소 품목에 판촉, 품질관리 등 지원도 확대한다.

셋째,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한류 기반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 협업을 통해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수 수출제품을 홍보하고 UAE에 범부처 연계 해외홍보관을 설치한다. 또한, 해수부와 협업하여 K-Food Fair(농식품부 주관 식품박람회),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유명 박람회에 통합 K-Food⁺ 통합한국관을 구성하고, K-Food 로고 해외 상표 등록을 확대('23년 48개국 → '24년 55)하는 등 홍보를 다각화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B2B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수출과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간 판로 공동활용, 공동 마케팅 및 상품 개발 등 협업모델을 마련하고, 상생 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수출 펀드(200억원)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K-Food⁺ 100대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유치·상장·수출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한다.

다섯째, 전후방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 등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 유망 국가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기부와 수출바우처·글로벌비즈니스센터 연계를 강화하는 등 관계 부처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수출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다.

스마트팜은 중동 등 수출 유망국가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중점지원무역관을 지정하는 등 거점화를 추진한다. 농기자재는 유럽·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약품은 수출용 GMP* 신설에 중점을 두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펫푸드는 판로개척, 시장조사 등 초기 시장 개척에 집중할 예정이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제 :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 '24년 수출목표 135억불 달성과 함께 K-Food⁺를 10대 수출산업^{*} (~'27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편 추진^{**}

* '23년 K-Food⁺ 수출은 121.4억불로 바이오 산업(134)에 이어 12대 수출산업 수준

** 수출 구조·체질 개선, 수출영토 확장, 민간협업·투자 확대,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포함

I 추진배경

- K-Food⁺는 국가경제 기여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 증대 및 생산 기반 강화, 국가 브랜드 제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전략산업
 - 글로벌 트렌드·통상환경 변화에 앞서나가며 비약적으로 성장^{*} (Quantum jump)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 ('14~'23) 4%대 성장 → '24년 135억불 목표 달성 후 성장세 확대

II 성과 및 진단

1. 2023년 성과

* '23년 K-Food⁺는 121.4억불로 전년 대비 2.6% ↑

- 민·관 '수출 원팀'이 되어 총력 지원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농식품은 '23년 91.6억불로 전년 대비 3.0% 증가, 8년 연속 성장
 - 전후방산업은 29.8억불(전년比 1.2% ↑),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성과
- * 넥스트온(쿠웨이트, 2천만불), 플랜티팜(UAE, 410만불), 셀포트(카자흐스탄, 187만불) 등

2. 현 상황 진단

- 특정 품목·시장(美·日·中) 중심의 편중된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 美·日·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 → 중동·중남미 등 진출 필요
- * '23년 농식품 수출액 중 美·中·日 비중 : ('19) 52% → ('21) 47 → ('23) 46
- ** 전후방산업은 농기계(52.4%), 북미시장 중심으로 수출 구조가 편중되어 있음
- 물류비 폐지^{*}('24~), 원자재·물류 리스크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직면
- * WTO 합의에 따라 '24년부터 물류비 보조 중단 → 대체사업 발굴하여 추진 중

Ⅲ 추진방향

비전

K-Food⁺ 10대 전략 수출산업 도약(~'27년)

목표

- ◆ '24년 K-Food⁺ 수출 목표 135억불 달성
* 농식품 100억불, 전후방산업 35억불
- ◆ 3대 新시장(중동·중남미·인도) 수출비중 확대
* ('23년) 6.2% → ('24년) 8% → ('27년) 12%
- ◆ 유망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출기반 마련
* 1억불 이상 수출기업 품목 확대 ('23) 21개 → ('24) 27

추진
계획

1. 수출 구조 · 체질 개선	-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 <u>수출통합조직 자생력 제고</u> 위주 지원체계 개편 - 콜드체인·CA 등 신선 물류 인프라 구축, 개별업체 물류 협의 → <u>공동 협의로 비용 절감</u> - 수입규제 모니터링 등 <u>통상환경 대응체계 마련</u>(범부처 협업), <u>R&D·수출보험 확대</u>, 지역 농업 기반 식품 제조 수출 브랜드 육성
2. K-Food ⁺ 수출영토 확장	3대 新시장(중동·중남미·인도), <u>할랄 진출 확대</u> - 아세안·EU 등에 시장개척요원 파견,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 美·中·日은 로컬시장 진출, 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u>기존 시장 내실화</u> - 검역해소 유망품목 수출 지원, 우선 수출 검역협상 로드맵 마련
3. 한류 마케팅 · 온라인 수출 활성화	- 농식품부 단독 마케팅 지원 → <u>범부처 협업*</u> * 우수제품 홍보(PPL), 해외홍보관 설치(UAE) - K-Food 로고, 안테나숍 설치 등 확대 - 글로벌 B2B 플랫폼 연계, 온라인 수출 활성화
4. 민간 투자 및 협업 확대	-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 발굴·추진 100대 유망 수출기업에 대한 전(全)주기 투자 지원 등 민간 투자 활성화
5. 전후방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중동 등 유망국가 거점화 G2G 협력 강화 (농기자재) 북미에서 유럽 등으로 시장 다변화 (동물약품) 수출용 GMP 신설, 금융지원 확대 (펫푸드) 초기 시장 개척 집중(판로개척·시장조사)

추진
체계

※ 수출본부 가동,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 정보 제공, 애로 해소, 밀착 지원

1. 수출 구조·체질 개선

◆ **물류비 지원** 위주 수출 구조를 **수출조직의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조직 주도로 **신선 물류 인프라** 구축

[1] 지원체계 개편

- **(수출조직 강화)** R&D, 품질개선, 마케팅 등 수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조직을 확대*하여 수출조직 위주 사업 개편
* 품목별 수출조직 확대 : ('23) 10개 → ('24) 12 (+무, 배추) → ('27) 20
- **(수출물량 확보)** 수출조직이 안정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출하의무계약 활성화
- **(바우처 확대)** 기존 물류비를 수출조직·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메뉴방식으로 선택하는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전환
* 공동선별, 장기저장제 보급 등 메뉴 확대('23: 15개→'24: 32), 예산 확대(44억원→328)

[2] 신선 물류체계 확립

- **(신선 인프라 구축)** 국내부터 해외판매지까지 수출 전(全)단계에 걸쳐 콜드체인·CA 등 신선농식품 특화 물류 인프라 구축

① 국내 콜드체인

· 저온시설이 부족한 농산물 선별장, 운송과정에 저온창고·차량 등 지원

② 해외 콜드체인

· 해외 콜드체인 지원 단계적 확대('23: 5개국 → '24: 6 → '27: 12)

③ CA 인프라

* CA(Controlled Atmosphere) : 대기 환경 조절을 통한 신선도 유지 기술

· 주요 신선 수출식품 유통구조에 맞는 CA시설 구축·이용 지원

* (딸기·버섯 등)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체계 전환 필요 → CA컨테이너(이동형), (배·포도) 장기 저장 필요 → 선별장에 고정형 CA시설, (기타) 고구마 등 적용 확대

④ 해외 물류 인프라

· 세계 20위 내 공항·항만 주변 해외물류센터 이용 확대('24: 93개 → '27: 115)

* 물류 전문기관과 연계 포함('23: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 '24: 미국 등 3개소 추가)

- **(물류비용 절감)** 신선농산물 신속통관제도* 도입, 공동포워딩 대상 확대** (딸기 → +배·파프리카) 등 추진

* (신속통관) 농식품 공항 수출 시 보안검색 등 통관절차 간소화(3~6시간 → 1~2)

** (공동포워딩) 업체들이 개별 운임 협상 → 수출조직이 물량을 모아 일괄협상 추진

◆ **식품 제조 수출은 통상환경 대응, 농업과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

- **(통상환경 대응)** 가공식품 관련 통상환경 변화 대응체계(범부처 협업)를 마련하고, 규제 모니터링, 기술연구, R&D, 수출보험 등 추진

- **(친환경)** '30년까지 對EU 수출 제품은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설계('22.11월 유럽위원회)
- **(물류)** 중동사태 장기화 시 홍해 항행 중단에 따른 운임 상승 등으로 수출 감소 우려
- **(규제)** 카타르는 '23.11월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적합성 인증) 발표

- **(농업-수출 연계)**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가공 브랜드(쌀가공, 음료 등) 성장 기반* 마련

* 가공식품 협회, 지역별 가공법인 활용하여 유망품목 발굴, 브랜딩·공동마케팅 지원

2. K-Food+ 수출영토 확장

◆ **잠재성이 높은 新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고, 기존 시장은 현지화 프로그램(EU·아세안), 2선 시장 진출(美·中·日)로 안정적 성장 도모**

※ 2선시장 : 각 국가별 중점도시 외 주변 지방도시(中 청도, 日 교토, 美 텍사스 등)

- **(신규시장 진출)** 중동·중남미·인도 3대 新시장을 개척*하고 할랄 시장 전략적 진출을 위한 저변 확대**

* (중동·중남미) 현지화 제품 개발·박람회 등, (인도) 시장조사·바이어발굴(코트라 등 연계)

** 할랄인증 상호인정 확대, 인증정보 제공, 마케팅 및 인증 지원

- **(기존시장 내실화)** EU·아세안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해외 현지 지원 프로그램* 도입, 美·中·日은 2선시장 진출 추진

* 호주·필리핀 등에 시장개척요원 파견, 수출상담회, 바이어 매칭 등 성장 지원

◆ **검역 협상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수출검역 추진**

- **(전략적 수출검역)** 유망 품목 우선 수출검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검역협상 로드맵」을 마련해 양자관리에 활용

- **(검역해소 품목 지원)** EU(열처리가금육), 뉴질랜드(감귤) 등 신규 검역 해소 품목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판촉·품질관리 지원

3. 한류 마케팅 · 온라인 수출 강화

◆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한류 기반 마케팅을 추진하고, 글로벌 B2B 플랫폼 · 해외 온라인몰 연계 온라인 수출 활성화**

- **(한류 기반 마케팅)**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류마케팅(PPL 등), K-Food 로고 해외 등록 확대(48개국→55), 한류 연계 행사* 등 추진

- **(박람회)** K-Food Fair(8회), 관계부처 협업 K-박람회(2회), K-콘서트 연계 K-Food 홍보
- **(안테나숍)** 중동·중남미 등에 안테나숍 및 팝업스토어 추가 개설(현재 18개소→31)
- **(재외공관 행사)** 주요국 재외공관 연계, 신선농산물, 김치·인삼 등 전통식품 시식행사

- **(온라인 수출 활성화)** 글로벌 B2B 플랫폼(품목별 전용 수출관) 연계*, 해외 온라인몰(한국식품관) 확대**로 온라인 수출 기반 확대

* 품목별 수출관 : ('23) 인삼(시범 운영) → ('24) 쌀가공식품, 유자 등 확대 검토

**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 식품관 : ('23) 15개 → ('24) 17(美 아마존, 中 도우인 추가)

4. 민간 투자 · 협업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투자 활성화 독려 및 투자기반 조성(정보제공 · 컨설팅 등) 확대**

- **(대·중소기업 협업)** 대기업과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간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여 시장별로 적용하고 우수사례 창출

-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 협약식」 개최(2~5월, 순차 진행)

※ 대·중소기업 협업 모델 (예시)

- **(유형1)** 대기업 판로를 중소기업이 공동 이용, **(유형2)** 新시장 공동 마케팅 추진, **(유형3)** 공동 브랜드(상품) 개발, **(유형4)** 편의점·식자재마트에 중소기업 제품 지원

- **(민간투자)** 수출기업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자금, 투자정보 제공 등 투자 기반 마련, '전(全)주기 투자 지원체계' 구축*

* K-Food+ 100대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상장 등 지원

5. 전후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정부간 협력 확대** 및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 강화**로 정책 효과 제고, **스마트팜·농기계·펫푸드 등 유망품목 맞춤형 정책 추진**

- **(G2G 협력 강화)** 정상 경제외교 후속 조치와 연계하여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 국가에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마련
 - *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 개최(2월), 농업분야 실무위원회 적극 활용
- **(정책 연계)** 수출보험(산업부)·바우처(중기부) 등 정책 연계 지원 확대
- **(맞춤형 지원)** 스마트팜·농기계·펫푸드 등 유망분야 맞춤형 지원
 - (스마트팜) 중동·CIS 등 수출 유망국가에 시범온실, 중점지원 무역관 등 확대하고, 컨소시엄 수주 지원 추진
 - (농기계) 유럽·아프리카 등 新시장 개척, 대형 트랙터 위주 품목 다변화에 집중하고, 정책자금·해외실증·수출상담 등 패키지 지원
 - (농약·비료·종자) 제품등록·R&D(농약), 융자지원·할당관세(비료), 해외 품종전시포 조성·현지 적합품목 개발(종자) 등 경쟁력 강화
 - (동물용의약품) GMP 인증제* 신설, 시장개척단 파견(아프리카) 등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제 :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 (펫푸드) 중국·호주 등 유망국가 시장조사, 해외 규격 인증, R&D, 바이어 발굴 등 펫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주기 지원 추진

6. 추진체계 강화

◆ **수출본부 가동**(정보제공·관리강화) 및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수출본부)** 대책 발표('24.2월) 계기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가동
 - 주요 수출기업(50개) 밀착 지원, 애로사항 발굴·해소(분기별) 추진
- **(범부처 협업)** 수입규제 등 통상 이슈(산업부), K-Food 모방제품 근절(특허청) 등 범부처 협업 추진